관음선행장학회, 33년 인재불사 눈길

2021년 장학생 38명에게 3800만원 전달

대표이사 지현 스님 강의료 희사
장학금 33년간 총 6억 2000만원
학생들과 법담 나누며 소통 이어
"좋은 인재로 성장해 달라" 당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재)관음선행장학회는 2월 21일 부산 관음사 원통보전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가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불사에 나섰다. (재)관음선행장학회는 33년간 지속적인 장학지원으로 인재불사의 모범 재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장학금은 총 620명의 학생들이 받았고 총 6억2000만원이 지급됐다.

(재)관음선행장학회(대표이사 지현)는 2월 21일 부산 사하구 당리동 관음사 원통보전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장학금 전달식은 정초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하며 법문 후 장학금을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장학금은 스님 16명, 고등학생 5명, 대학생 15명, 대학원생 2명 총 38명이 받았으며 장학금은 각 100만원 총 3800만원이 전달됐다.

장학생은 송광사 율원 및 강원, 자비선사 및 동국대에서 공부하는 스님들 가운데 추천을 받아 선정했으며, 해동고등학교 및 불자 학생 가운데 성실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들을 선발했다. 장학지원을 받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 가운데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극복하고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을 후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지현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의 얼굴을 못 보는가 했는데 이렇게 마주하고 격려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발전해 나라와 불교를 위한 좋은 인재들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현 스님은 학생들과의 장학금 전달 후에도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원 박사 학위 취득 후 논문을 가져와 스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취업 시에도 감사 인사를 올린다.

(재)관음선행장학회는 1991년 정금강 행 불자와 뜻을 모은 불자들이 창립한 장학재단으로 자산 1억 원을 모아 설립, 운영돼 왔다. 2003년 12월 관음사로 정식 이관되어 재단법인으로 등록 후 운영되고 있다.

2019년에는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이 2억 5000만원으로 자산을 증액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현 스님은 평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스피스교육, 교양강좌, 불교교리강좌 등을 개설해 강의료 전액을 장학회 후원금으로 기부 중이다.

(재)관음선행장학회는 "사실 재단에서 나오는 이자를 장학 후원금으로 활용하기엔 금액이 소소하다"며 "스님께서 받으셔야 할 강의료를 모두 희사하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학금 지급은 지난 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총 35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는 "33년 동안 장학사업을 잇고 있는 모범적인 장학재단이다"며 "인재는 곧 국가와 사회 발전의 초석이다. 함께 동참할 도반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051)203-9461

부산불교교육대학, 코로나에도 향학열 높아

엘리트반 1기 및 유튜브 강의 신설


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은 3월 8일 입학을 맞아 학과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코로나에도 꺾이지 않는 향학열로 뜨겁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개교 40주년을 맞아 지도자 양성을 위한 경전 강좌 '엘리트반 1기'를 새롭게 개설했다. 아울러 SNS 활용 및 유튜브 강좌를 열어 비대면 활동을 지원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3월 8일 입학을 맞아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고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신설학과는 '엘리트반1기'와 '유튜브와 SNS 활용(초급과정)'이다.

엘리트반1기는 '화엄경 강의'와 '금강경 강의'로 나눠 진행된다. 1학기는 〈화엄경〉 강의로 화엄학 연구소장이자 화엄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신규탁 교수가 맡는다.

신규탁 교수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의 제자로 일본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현재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활동하는 불교계 대표 석학이다. 강의는 신규탁 교수가 집필한 〈화엄경 초역〉을 교재로 사용한다. 〈화엄경 초역〉은 월운 스님의 〈화엄경〉 번역서를 토대로 핵심을 간추려 정리한 책이다. 핵심을 요약 정리해 일반인들이 방대한 〈화엄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왔다.

2학기에는 前 해인사 강주 보윤 스님이 '금강경 강의'를 담당할 예정이다.

'엘리트반 1기' 강의는 1년 과정이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에 진행된다. 현재 수강 신청 열기도 뜨겁다. 기초교리학과와 불교학과 졸업예정자 및 기존 대학원생 등 등록자 수가 늘고 있다. 이번 강의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유튜브 강좌가 병행된다.

학장 범혜 스님은 "유튜브 강의는 거리가 멀어 참석할 수 없는 타 지역 수강 신청자와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제공한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발맞춘 '유튜브와 SNS 활용(초급과정)'도 개설했다. 스님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강의는 6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4시에 진행된다. 강사는 유지호 불교신문 부산지사장이다. 유지호 지사장은 유튜브 불교 방송 '절로 TV'를 개설해 포교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현재 3만8천여 명의 구독자가 참여 중이다.

이외 정규과정 중 자격증 반인 불교문화학과와 승려연수과정도 진행되며 문화힐링과정인 합창반, 다도반, 수화반, 대금반, 사물놀이반도 진행된다.

학장 범혜 스님은 "부산은 불교수도라 불린다. 올해 개교 40년 주년을 맞은 본교는 불도 부산의 산실이자 산증인이다"며 "이번 강좌 개설은 불자다운 불자, 지도자 양성에 목적을 둔다. 부산 최초의 불교대학으로 앞으로도 교육과 포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불교교육대학은 3월 8일 오후 7시 '2020년 합동 졸업식 및 2021년 입학식'을 부산 가야대로에 위치한 신동아빌딩 5층에서 거행한다. 코로나19 예방 확산을 위해 합동으로 진행되며 참석인원과 의식 절차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축소될 예정이다. 이날 불교문화포교사 및 전문지도사 자격증 수여식도 진행된다.
(051)711-070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성철 스님 사상 교육 도량으로"

정인사 2월 23일 교육관 낙성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수행하고 교육할 공간이 새롭게 조성됐다. 마산 정인사는 교육관 완공을 알리는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마산 정인사(주지 원행)는 2월 23일 교육관 낙성식을 교육관 2층에서 개최했다.

정인사 교육관은 성철 스님의 유지를 받드는 정법 수행 도량으로 건립됐다. 34년 전 정인사 창립 후 108참회, 능엄주 기도 수행처로 확대 후 체계적인 교육 및 포교를 위한 공간으로 건립됐다.

2019년 8월 교육관 신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11월 설계도가 완성, 2020년 4월 28일 기공식이 진행됐다. 정인사 교육관은 대지150평에 연건평 330평인 4층 건물이다. 교육관은 종합불교대학 강의실, 기도공간 및 참선방, 요사채, 주차장 등으로 구성됐다.

낙성식에는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 정인사 주지 원행 스님, 청량사 주지 원타 스님, 불곡사 주지 도홍 스님, 정법사 주지 도문 스님, 수선정사 성일 스님, 진불선원 무아 스님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보광화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동참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안 돼!"

울산불교환경연대, 설치 반대 캠페인 개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캠페인이 개최됐다.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는 2월 20일 신불산 웰컴복지센터에서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은 울산환경운동연합과 공동주최했으며 행사에는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한기양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상임대표, 서민태 울산저널 대표, 김혜진 천년숲지킴이 천화 대표 등 30여 명이 동참했다.

울산불교환경연대 천도 스님은 "'신불산은 나의 산이다'란 주인 의식으로 모두가 다함께 지켜야 한다"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산과 생명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짓이 반복되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자연환경 보호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보호막이다"며 "오늘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를 위해 동참해준 울산불교환경연대와 울산기후비상행동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생명나눔부산, 공감기부 교류식

국제신문 · BNK 금융그룹 부산은행 등 협약 지속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국제신문 · BNK 금융그룹 부산은행과 협력해 난치병 환우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는 2월 19일 국제신문에서 '공감기부 프로젝트 사업실적 확인 및 교류식'을 진행했다.

두 기관은 교류식을 통해 지난 난치병 환우 치료비 및 지원 사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장 심산 스님과 이영숙 이사, 신정훈 부산은행 팀장, 배재한 국제신문 이사, 오상준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